무안군,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신규설치 완료

지적기준점 3,545점 대상 망실·훼손 여부 전수조사 실시

"군민 재산권 보호·토지경계 분쟁 사전 예방 신뢰도 향상"

무안군은 지적측량 시 정확한 측량성과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와 신규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토대가 되는 좌표로 측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돼 각종 개발사업, 개인 간의 매매목적 측량 등에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적기준점 3,545점(지적삼각점 19점, 지적삼각보조점 41점, 지적도근점 3,485점)을 대상으로 망실 또는 훼손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로굴착·포장,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망실 또는 훼손돼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기준점은 폐기했으며,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 신규로 설치한 기준점 296점은 고시 후 측량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측량기준점 일제조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적행정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벼 병해충 공동방제 교육 실시

드론 보유 농업단지 대표 30명 대상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벼 병해충 종합방제 시기를 앞두고 공동방제 교육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19일 "방제단 및 드론을 보유한 농업단지 대표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변경된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 방제요령 및 친환경 농업, 농약 안전사용 요령 등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다양한 맞춤형 드론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관내 벼 재배지 4,000ha 면적에 공동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2022년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용

별도 절차 없이 모든 시민 혜택…재난·안전사고·대중교통상해 등 피해 보장

목포시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정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있는데 시는 지난 2019년 7월 최초 가입 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사고 ▲화상수술비 ▲유독성물질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침몰사고 사망 1천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백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백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시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재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270-3651)나 보험사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 시작

영광군은 지난 18일 영광군여성문화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사전 직무교육과 함께 2022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대학생 75명의 신청을 받아, 13일 공개추첨을 통해 4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군청 실·과·소 및 읍·면 사무소 등에 배치돼 영광작은영화관 운영 보조, 장남감도서관 운영 보조, 대회 운영 보조, 물무산 행복숲 정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및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4주간이며,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임금은 54,960원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실시하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다양한 군정업무를 경험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온힘…사업비 2억원 확보

군내버스 차고지 부족 해소와 선진 교통서비스에 기여

영암군은 농어촌버스 업체의 차고지 부족과 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올해 6월말 영암읍 영암야구장 주변 군유지(역리 46-2번지 / 2,979㎡)를 활용하여 최대 50여대의 군내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버스공영차고지에 사무실, 휴게시설, 정비시설, 세차시설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3억6천만원을 신청하였고 202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 "버스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군내버스 노선 신설에 따른 고질적인 차고지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차고지 내 휴게시설 설치로 버스운수종사자의 복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버스 운수종사자는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자색옥수수로 퍼플섬에 퍼플을 더하다

신안군은 퍼플섬의 명성에 걸맞게 반월·박지도에 자색옥수수를 재배하고 본격 수확을 시작했다.

자색옥수수(블랙베리 찰옥수수)는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잎과 수염, 속대까지 자색으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풍부하고 단맛이 강해 일반 옥수수보다 인기가 높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군 안좌면 퍼플섬에서는 콜라비, 비트, 자색고구마 등 퍼플농산물을 재배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컬러마케팅을 지속해왔다.

자색옥수수는 올해 본격적으로 재배하여 퍼플섬 현장에서 찐옥수수로 판매를 시작하고 옥수수 티백, 스프 등 다양한 가공식품 재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안=이덕주 기자